유해물질 기준 50배 초과 워셔액 시중 유통

환경부 세정제·코팅제·방향제 14개 제품 적발 회수조치
이달중 수사기관 고발 조치…판매한 제품 교환·환불해야

환경부가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최대 50배 넘게 초과한 자동차 워셔액과 세정제 등을 적발해 판매금지와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2일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14개 업체 14개 제품을 적발해 최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제품들은 주로 생활용으로 쓰이는데도 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지정된 '위해우려제품'으로, 자동차용 워셔액, 세정제, 코팅제, 방향제 등이다.

위해우려제품은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거쳐 유통해야 하며 자가검사에 합격할 때 부여되는 번호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문제의 제품들 가운데 국산 자동차 워셔액인 용호종합상사의 '사계절 워셔액'과 (주)에이원케미칼의 'A1 사계절 워셔액'은 유해물질인 메틸알코올 안전기준(0.6% 이하)을 각각 38.3배, 51.3배나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워셔액은 자가검사를 받지도 않고 유통한 13개 제품에 속한다.

(주)와이더코퍼레이션이 수입한 세정제인 '미스터 클린'은 에탄올아민 안전기준(0.1% 이하)을 5.8배 초과했다. 이 제품은 자가검사를 받았는데도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이들 3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제품은 ▲Bathtub Resurfacing kit_cleaning power(수입 세정제·크린통상) ▲NeverWet FABRIC(수입 코팅제·티앤에프) ▲Greenland Wax Travel Pack(수입 코팅제·에스제이컴퍼니) ▲Motul E.Z. Lube(수입 방청제·일진통상) ▲FROG SPIT ANTI-FOG(수입 김서림 방지제·씽크워터·이상 해당 수입업체 제품에 한함) ▲소칠이(코팅제·케이앤피) ▲푸들석고방향제(방향제·라플레인) ▲호빵맨친구들 석고방향제(방향제·센트팩토리) ▲스누피 석고방향제(방향제·A Flowery Day) ▲크리스마스무민패밀리 석고방향제(방향제·블루버드스토어) ▲Shine 다용도 세정제(세정제·Shine H.T Tech) 등으로, 자가검사미이행과 표시사항 전체 미표기 등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환경부는 문제의 14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들에 판매금지와 회수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달 중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이들 제품이 더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하는 한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되면 대형 유통매장과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운영 매장에서 판매가 차단된다.

판매금지와 회수 명령 대상 업체는 관련 법규에 따라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해야 하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은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생산·수입 기업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반품할 수 있으며,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환경부는 "회수 명령이나 유통 차단 조치 등에도 미처 회수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제품의 유통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또…불타는 BMW 승용차 2일 오전 11시 47분께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04㎞ 지점에서 리콜(시정명령) 조치에 들어간 차종과 같은 모델인 BMW 520d 승용차에서 또 불이 났다. /연합뉴스

광주시민 10명 중 6명 "불편 감수하더라도 녹색소비 실천 의향"

광주시민 10명 중 6명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녹색소비를 실천할 의향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광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지난 6월2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광주시민 9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녹색소비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9명(90.5%)은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배출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10명 중 6명(61.1%)은 '환경을 위해서는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구매습관으로 바꿀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녹색소비실천에 대한 행동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87.3%)은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있었으나 탄소포인트제도와 같은 친환경 관련 제도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10명 중 2명(18.2%)에 불과해 친환경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친환경제품 판매처가 충분하다'고 응답한 시민은 14.2%였으며, 55.1%는 친환경제품이 비싸다고 인식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커피숍 등 일회용컵 단속 시작…다회용컵 권유 여부가 핵심

2일부터 전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컵 남용 단속이 시작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는 이날부터 우선적으로 관할 지역 내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를 현장 방문해 매장 직원이 고객한테 다회용컵(머그잔 등) 사용을 권하는지 등을 단속한다.

단속의 핵심은 매장 측이 다회용컵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하는지다. 직원이 고객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으로 커피나 음료를 주면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다. 여기서 일회용컵은 플라스틱컵이다. 현행법상 종이컵은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매장 직원이 '머그잔에 드려도 되느냐'고 물었을 때 일회용컵을 요구한 뒤 커피나 음료를 받아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문제 될 것이 없다.

매장 직원이 머그잔 사용을 권유했지만 고객이 일회용컵을 요구한 뒤 매장 내에서 마시는 경우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런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며 "매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회용컵을 권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님 입장에서도 매장에서 잠시 마시다가 가지고 나갈 생각으로 일회용컵을 요구할 수 있다.

대신 단속반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이용 중인 고객에게 매장이 다회용컵을 제안했는지 여부 등을 물을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모습을 사진으로 제보하는 일명 '컵파라치'를 통한 과태료 부과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실적 위주의 과태료 부과도 지양하기로 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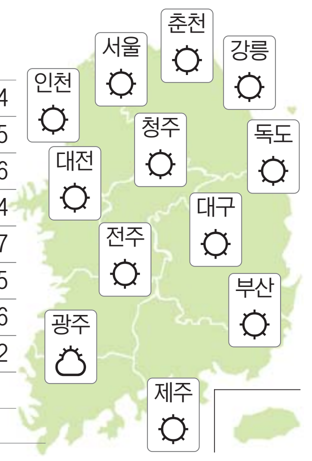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05:43	달뜸	23:17
해짐	19:34	달짐	11:19

너울조심!

해수욕장 피서객들은 높은 파도에 유의하세요

광 주	구름많음	27/37	보 성	구름많음	24/34
목 포	맑음	26/34	순 천	구름많음	27/35
여 수	맑음	26/34	영 광	맑음	26/36
나 주	구름많음	25/37	진 도	맑음	26/34
완 도	맑음	26/34	전 주	맑음	26/37
구 례	구름많음	24/36	군 산	맑음	26/35
강 진	맑음	25/35	남 원	맑음	25/36
해 남	맑음	25/35	흑산도	맑음	26/32
장 성	구름많음	25/3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5	동~남동	0.5~1.5
	먼바다	북동~동	2.0~4.0	동~남동	2.0~4.0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동	0.5~2.0	동~남동	0.5~1.5
	먼바다(동)	북동~동	2.0~3.0	동~남동	1.5~2.5
	먼바다(서)	동~남동	2.0~3.0	동~남동	1.5~2.5

◇생활지수

식중독	경고
자외선	매우높음
미세먼지	좋음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1:18	06:02
	23:31	18:26
여수	06:43	00:30
	18:49	12:58

◇주간 날씨

4(토)	5(일)	6(월)	7(화)	8(수)	9(목)	10(금)
26/37	26/37	26/37	26/36	26/35	26/35	26/35

목포해경 피서철 해양사고 예방 음주운항 등 일제 단속

목포해양경찰은 "피서철 국민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집중 단속 사항은 피서철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수가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설비, 과승·과적 및 음주운항 등이다.

형사 요원들로 이루어진 전담반을 투입해 선박 불법 개·변조 등의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낚시어선 및 레저보트 등 주요 출조 지역에 경비함정을 배치, 해·육상을 연계해 단속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하계 피서철 낚시어선 등 다수가 이용하는 선박 위험요소를 사전에 살펴보고 해양안전 저해 사범이 있을 시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인명사고 집중…8월초 물놀이 주의하세요

다슬기 채취·식중독 주의 당부

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시기인 8월초 휴가지에서 폭염은 물론 물놀이 사고와 식중독에 유의해 달라"고 2일 당부했다. 물놀이 인명피해는 특히 8월 초순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8월에 발생한 인명피해 81명 중 44명이 8월 초순 피해를 봤다.

특히 최근에는 다슬기를 잡다가 발생하는 사고도 늘고 있다. 다슬기 채취로 인한 인명피해는 지난해 20명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지난달 29일 현재 21명이다. 8월은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식중독 사고도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시기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8월에만 197건의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 7506명 환자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물놀이 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는 즉시 물 밖으로 나와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슬기를 채취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고 2인 이상 조를 이뤄 함께 가는 것이 좋다. 다슬기 채취망에는 물에 잘 뜨는 고무공이나 스티로폼을 달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김한영 기자 young@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제품 | SAMSUNG LG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설치방법 : ①렌탈 : 설치비용 0원 ②무담보 : 90% 신용대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썬그린에너지(주)

상담 1577-3093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화순

1566-1394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 통합시스템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